

‘オホキミ’의 초기 번역어 연구*

- 왜 정착하지 못했나 -

박 상 현**

(e-mail: koreaswiss@khcu.ac.kr)

目 次

1. 들어가면서
 2. 일제강점기하의 ‘オホキミ’ 번역어
 3. 광복 후의 ‘オホキミ’ 번역어
 4. 왜 초기 번역어는 정착하지 못했나
 5. 나오면서
-

1. 들어가면서

『만엽집(万葉集)』에는 ‘OHOKIMI(オホキミ)’라는 가어(歌語)가 보인다. “천황의 경칭(天皇の敬称)”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オホキミ’를 우리말로 옮겨 보면 어떻게 될까?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만엽집』에 보이는 ‘オホキミ’를 우리말로 최초로 번역한 인물은 일제강점기에 경성제국대학에서 당시의 ‘국문학(国文学)’인 ‘일본문학(日本文学)’을 전공했던 서두수였다. 그²⁾는 1942년 11월 2일부터 12일까지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만엽집』의 작품 가운데서 ‘병사의 노래(防人歌)’를 뽑아 조선어로 번역·소개한 「防人歌(사씨모리노우다)-치출한 이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가 수행하는 중점연구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연구임(NRF-413-2011-2-A00001)

** 경희사이버대학교 일본학과 부교수 일본문화학(万葉集)

1) 尙学図書 編(1990) 『国語大辞典』 小学館. p.327

2) 서두수는 전(前) 카이스트 총장이었던 서남표의 아버지다.

식」을 연재했는데,³⁾ 여기서 그는 ‘オホキミ’의 번역어로 ‘聖上’을 일관되게 차용했다.⁴⁾

그로부터 1년 후인 1943년에는 우리들에게 번역가이자 시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김억이 두 번째로 『만엽집』에 나오는 ‘オホキミ’를 우리말로 옮겼다. 그도 서두수와 동일하게 『매일신보』라는 매체에 『만엽집』을 연재했는데, 그 제목이 「만엽집초역(万葉集鈔訳)」이었다. 또한 그는 1944년에는 만엽(万葉)시대 가인(歌人)뿐만이 아니라 에도(江戸)시대 가인의 와카(和歌)가 실려 있는 『愛國百人一首』를 조선어로 번역했다. 『선역애국백인일수(鮮訳愛國百人一首)』가 그것이다. 김억은 이 번역서를 통해서도 『만엽집』의 작품을 식민지 조선인에게 알렸다.⁵⁾ 그리고 그는 「만엽집초역」과 『선역애국백인일수』에서 ‘オホキミ’를 모두 ‘님’으로 번역했다.⁶⁾

한편 광복 후에 김사엽은 『한역 만엽집-고대일본가집(韓訳万葉集-古代日本歌集)』(이하, 『한역 만엽집』)이라는 번역서를 통해 『만엽집』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소개했는데, 그때 그는 방금 언급한 서두수와 김억과는 크게 다르게 ‘オホキミ’의 번역어로서 ‘大君’, ‘임금’, ‘大王’, ‘皇女’, ‘天皇’, ‘皇子’, ‘님’, ‘王’, ‘왕’과 같은 다양한 용어를 차용했다.⁷⁾

또한 최근에는 이연숙, 구정호, 강용자·고용환 등이 『만엽집』을 우리말로 옮겼다. 이연숙은 완역을 목표로 지금 『만엽집』을 한창 번역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결실이 얼마 전에 『한국어역 만엽집 1-3』으로 박이정에서 출간되었다.⁸⁾

3) 서두수의 『만엽집』 소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아래 글을 참조해주길 바란다.

박상현(2011) 「서두수의 『만엽집』 번역에 관한 연구-「防人歌(사씨모리노우다)-치졸한 이식」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제39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p.223-236

4)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아래 글을 참조해주길 바란다. 특히 본고 제2장의 내용은 아래 논문의 연구성과를 반영한 것이다.

박상현(2013) 「『만엽집』에 보이는 ‘大君’의 번역어 연구-서두수와 김억의 번역어를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제57집, 한국일본문화학회. pp.70-71

5) 『愛國百人一首』와 『선역애국백인일수』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글을 참조해주길 바란다.

박상현(2009) 「김억의 『선역애국백인일수』 연구」 『통번역교육연구』 제7권2호, 한국통번역교육학회. pp.121-139

6)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다음 글을 참조해주길 바란다. 특히 본고 제2장의 내용은 다음 논문의 연구성과를 수용한 것이다.

박상현(2013) 앞의 논문. pp.71-73

7)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래 글을 참조해주길 바란다. 특히 본고 제3장의 일부 내용은 아래 논문의 연구성과에 빚진 바가 있다.

박상현(2013) 「‘おほきみ’의 번역어 연구-김사엽의 『만엽집』 번역어를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제47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p.174-181

8) 이연숙(2012) 『한국어역 만엽집1-만엽집 권1·2』 박이정.

_____ (2012) 『한국어역 만엽집2-만엽집 권3』 박이정.

_____ (2012) 『한국어역 만엽집3-만엽집 권4』 박이정.

총 20권으로 구성된 『만엽집』 가운데 우선 권1에서 권4까지 번역한 것이다. 여기서 그는 ‘オホキミ’를 ‘대왕’, ‘왕자’, ‘대군’, ‘황녀’, ‘황자’, ‘大君’, ‘왕’으로 다양하게 옮겼다. 구정호는 『만요슈-고대 일본을 읽는 백과사전』 9)에서 ‘オホキミ’의 번역어로 ‘주군’과 ‘임금’을, 그리고 강용자·고용환은 『만엽집』 10)에서 ‘대왕’을 각각 차용했다.

그런데 ‘オホキミ’의 번역어를 통시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점이 눈에 띈다. 즉 ‘オホキミ’의 초기 번역어에 해당하는 ‘聖上’과 ‘님’이 후대에 정착하지 못했다¹¹⁾는 점이다.¹²⁾ 번역어의 역사를 보면 초기 번역어가 후대에 강한 영향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말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일까?

2. 일제강점기하의 ‘オホキミ’ 번역어

일제강점기에 서두수와 김억이 『만엽집』을 조선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オホキミ’를 우리말로 옮기게 된다. 우선 서두수의 경우를 보자.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그는 『만엽집』의 작품 가운데 ‘병사의 노래’를 골라 『매일신보』에 조선어로 번역·소개했다. 이들 와카 가운데 ‘オホキミ’가 나오는 것은 권20·4328, 권20·4358, 권20·4373, 권20·4393, 권20·4394, 권20·4403, 권20·4414번 노래(歌)와 같이 총 7수(首)인데, 여기서 그는 ‘オホキミ’를 ‘聖上’(권20·4358, 권20·4403, 권20·4414), ‘우리聖上’(권20·4328, 권20·4373, 권20·4394), ‘우리聖上님’(권20·4393)으로 각각 번역했다. 예컨대 다음과 같다.

권20·4414

おほきみの 命かしこみ 愛しけ 真子が手離り 島伝ひ行く

聖上께서니 크신말삼저어라 애롭고귀연 내님손쳐러져 섬과섬지나며가오

9) 구정호(2005) 『만요슈-고대 일본을 읽는 백과사전』 살림.

10) 강용자·고용환(2009) 『만엽집』 지만지.

11) 나중에 <표1>에서 자세히 제시하듯이 김사엽은 권2·202번 노래에서 ‘オホキミ’를 ‘님’으로 번역했지만, 이런 용례는 이 와카뿐이다. 그리고 이연숙, 구정호, 강용자·고용환 등도 ‘オホキミ’를 ‘님’으로 옮긴 적이 없다. 따라서 ‘オホキミ’의 초기 번역어의 하나인 ‘님’이 후대에 정착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12) 이와 동시에 김사엽이나 이연숙 등이 ‘オホキミ’의 번역어로 서두수와 김억과는 달리 다양한 용어를 차용했던 것도 무척 흥미로운 테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 새로운 글에서 논하고 싶다.

권20·4394

오ほき미의 命かしこみ ゆみの共 真寢か渡らむ 長けこの夜を우리聖上 크신말삼어려웨라 활을잡은양 긴이밤을새울것가 기나기단이밤을

권20·4393

오ほき미의 命にされば 父母を 齋瓮と置きて 參出來にしを우리聖上님 크신말삼나리다 이바어머니 神主독 모셔두듯 모셔두고왔노니

결국 서두수는 ‘오호키미’의 번역어로 일관되게 ‘聖上’을 차용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김억의 경우를 살펴보자. 그는 「만엽집초역」에서 ‘오호키미’를 ‘우리님’(권3·243)으로 번역했다. 또한 『선역애국백인일수』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즉 그는 『만엽집』 권2·235번 노래에 보이는 ‘오호키미’와 이시카와 요리히라(石川依平), 쓰다 아이노스케(津田愛之助), 다나카 카와치노스케(田中河内助)의 각각의 와카에 보이는 ‘오호키미’를 ‘우리님’으로 번역했다. 그리고 『만엽집』 권20·4373번 노래에 보이는 ‘오호키미’와 승녀 게쓰 쇼(僧 月照)의 와카에 보이는 ‘오호키미’를 ‘높으신님’으로, 가모치 마사즈미(鹿持雅澄)와 오구라 와시오(大倉鷲夫)의 와카에 보이는 ‘오호키미’를 ‘님’으로 각각 번역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권3·243

오ほき미は 千歳にまさむ 白雲も 三船の山に 絶ゆる日あらめや우리님 千歲萬歲 언제나 게실것이 흰구름 『미후네』 산을 찌날꺼야 잇든고

승녀 게쓰 쇼

오ほき미のためには 何か惜しからむ 薩摩のせとに 耳は沈むとも높으신 님을위해 무엇을 앓길것가 「사츠마」 깊은바다에 몸이든들 잇더리

가모치 마사즈미

오ほき미の 宮敷きまし 榎原の うねびの山の 古おもほゆ님끼서 게오실궁 지오신 「카시하라」 「우네비」 神山바라니 옛날생각 깊소라

물론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김억은 권15·3644번과 권20·4328번 노래와 같이 ‘오호키미’를 번역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권15·3644

おほきみ의 命かしこみ 大船の 行のまにまに やどりするかも

御命을 받자옴고 선뜻이 나선이뎌 어되나 배닿는곳서 쉬고자고 하리라

권20·4328

おほきみ의 命かしこみ 磯に触り 海原渡る 父母を置きて

御命을 받자옴 父母가 그무엇고 다만지 海岸을거쳐 난바다로 갈거나

하지만 위에서 인용한 권3·243번 와카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김억은 기본적으로 ‘オホキミ’의 번역어로서 ‘님’을 빌려 썼다고 말할 수 있다.¹³⁾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서두수와 김억은 ‘オホキミ’의 번역어로 ‘聖上’과 ‘님’을 차용한 후, 모든 ‘オホキミ’를 ‘聖上’과 ‘님’으로 각각 번역했다.

3. 광복 후의 ‘オホキミ’ 번역어

광복 후에 『만엽집』을 한국어로 옮겼던 주요 인물로는 김사엽, 이연숙, 구정호, 강용자·고용환 등이 있다. 김사엽은 『만엽집』 완역을 목표로 번역을 진행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작업 도중에 작고하는 바람에 『만엽집』 20권 가운데 권1~권16까지만 『한역 만엽집』(成甲書房)으로 일본에서 출간되었다¹⁴⁾. 그리고 그의 사후 『한역 만엽집』의 미완성 유고가 2004년에 『김사엽전집』 제12번(박이정)으로 나왔다(이하, 『미완성유고』). 여기에는 『만엽집』 권17~권20에 실려 있는 작품 627수(首) 가운데 158수가 발췌·번역되어 있다. 또한 이연숙은 최근에 『만엽집』 완역을 목표로 지금 『만엽집』을 한창 번역하고 있는 중인데, 그 첫 번째 결실이 얼마 전에 『한국어역 만엽집 1-3』으로 박이정에서 출간되었다.

김사엽과 이연숙의 번역 작업이 『만엽집』 완역을 목표로 했다고 한다면, 구정호와 강용자·고용환은 『만엽집』을 발췌·번역했다. 구정호는 『만요슈-고대 일본을 읽는 백과사전』을 통해, 강용자·고용환은 『만엽집』을 통해 각각 『만엽집』을 번역·소개했다.¹⁵⁾

13) 박상현(2013) 앞의 논문 「『만엽집』에 보이는 ‘大君’의 번역어 연구-서두수와 김억의 번역어를 중심으로」. pp.71-73

14) 김사엽의 『한역 만엽집』은 일본국제교류기금 번역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박경희(2006) 『일본의 번역출판사업 연구-일본문학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번역원. pp. 208-258

15) 구정호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만엽집』에 실려 있는 와카를 번역했는지 명확히 밝히

우선 김사엽은 『한역 만엽집』에서 ‘オホキミ’를 ‘大君’, ‘임금’, ‘大王’, ‘皇女’, ‘天皇’, ‘皇子’, ‘님’, ‘王’, ‘왕’¹⁶⁾과 같은 다양한 용어로 번역했는데, 그것을 정리한 것이 다음과 같은 <표1>이다.

<표1>

노래번호	번역어									
	大君	임금	大王	皇女	天皇	皇子	님	王	왕	×17)
권1·3	大君									
5	大君									
36		임금								
38		임금								
45			大王							
50	大君									
52			大王							
77	大君									
79* ¹⁸⁾		님금님								
79*	大君									
권2·147		님금님								
152	大君									
155		임금님								
159	大君									
162	大君									
167		임금								
196*				皇女						
196*				皇女						
198				皇女						
199*					天皇					
199*					天皇					
199*						皇子				
199*						皇子				
202							님 ¹⁹⁾			
204						皇子				
205						皇子				
권3·235*	大君									
235*								王		

고 있지 않다. 한편 강용자·고용환은 『만엽집』에 실려 있는 각각의 권두(卷頭) 노래와 권말(卷末) 노래, 그리고 중간의 대표적인 노래를 뽑았다고 적고 있다.

강용자·고용환(2009) 『만엽집』 지만지, p.18

16) 이때 ‘왕’이 ‘임금’의 의미로서의 ‘왕’인지, ‘オホキミ’의 의미로서의 표기인 ‘王’를 단지 한글로 표시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239*			大王							
239*			大王							
240			大王							
241	大君									
243						皇子				
261						皇子				
295		임금님 들								
297		임금님								
304	大君									
329	大君									
368	大君									
369	大君									
417	大君									
420	大君									
441		임금님								
443		임금님								
460		임금님								
475	大君									
476		임금님								
477	大君									
478		임금								
권4·543		임금님								
권5·794			大王							
800		임금님								
권6·917		임금								
923		임금								
926		임금님								
929		임금님								
933		임금								
938		임금								
948		임금님								
950		임금								
956		임금님								
1005	大君									
1019		임금님								
1020		임금님								
1032		임금님								
1047*		임금								
1047*		임금님								
1050*		임금								
1050*	大君									
1053		임금								

개), 권18·4095, 권18·4098, 권18·4099, 권18·4113, 권18·4116, 권19·4154, 권19·4214(2개), 권19·4254(2개), 권19·4260, 권19·4261, 권19·4266, 권19·4270, 권19·4272, **권20·4328**, **권20·4331**(2개), 권20·4358, 권20·4360, 권20·4373, 권20·4393, 권20·4394, 권20·4398, 권20·4403, 권20·4408(2개), 권20·4414, 권20·4472, 권20·4508, 권20·4509, 권20·4510

이 가운데 김사엽은 『미완성유고』에서 6개의 ‘오호키미’를 우리말로 옮겼는데, 그때 그는 ‘오호키미’를 ‘대군’과 ‘임금’으로 각각 번역했다. 즉 그는 권18·4056번, 권18·4063번, 권18·4064번 노래에 나오는 ‘오호키미’를 ‘대군’로, 권18·4059번, 권20·4328번, 권20·4331번 노래에 등장하는 ‘오호키미’를 ‘임금’으로 각각 번역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권18·4064

오호키미は 常磐に在さむ 橋の 殿の橋 直照りにして

대군은 永久히 大盤石으로 계시오리다 굴나무댁(橋脚家) 어전(御殿)의 굴열매 아름답게 빛나면서²⁰⁾

권20·4331

오호키미의 遠の朝廷と しらぬひ 筑紫の国は 敵守る 鎮の城そと 聞し食す 四方の国のは ……

임금의 서울을 멀리 떠난 마을로서 지구시(筑紫의 고을을 막는 城紫)라고 다스리는 사방의 고을에는 ……²¹⁾

한편 이연숙과 구정호 그리고 강용자·고용환은 ‘오호키미’를 각각 어떻게 번역했을까? 이연숙은 ‘오호키미’를 ‘대왕’, ‘왕자’, ‘대군’, ‘황녀’, ‘황자’, ‘대군’, ‘왕’으로 다양하게 번역했고, 구정호는 ‘오호키미’를 ‘주군’과 ‘임금’으로 옮겼다. 그리고 강용자·고용환은 ‘오호키미’의 번역어로 ‘대왕’을 차용했다. 그것을 각각 정리해 놓은 것이 다음과 같은 <표2>다.

20) 김사엽전집간행위원회 편(2004) 『김사엽전집』 (12) 박이정. p.97

21) 위의 책. pp.239-240

<표2>

노래번호	이연숙							구정호		강용자 · 고용환
	대왕	왕자	대군	황녀	황자	왕	大君	주군	임금	대왕
권1·3	대왕									
5	대왕 님									
36	대왕									
38	대왕 님									
45		왕자 님						주군		대왕님
50	대왕 님									대왕
52	대왕 님									
77	대왕								임금	
79*	대왕 님									
79*	대왕									
권2·147	대왕									대왕
152	대왕							주군		
155	대왕							주군		
159	대왕									
162	대왕 님									
167			대군							
196*				황녀						
196*				황녀						
198				황녀						
199*	대왕									
199*					황자					
199*					황자					
199*					황자					
202		왕자							임금	
204		왕자								
205					황자				임금	
권3·235*	대왕									
235*	대왕									대왕
239*		왕자								

		님								
239*		왕자 님								
240		왕자								
241		왕자								
243		왕자 님								
261		왕자								
295	대왕									
297	대왕									
304	대왕									
329	대왕									
368	대왕									
369	대왕									
417						왕				
420						왕				
441	대왕									
443	대왕									
460	대왕									
475							大君			
476		왕자								
477		왕자								
478							大君			
권4·543	대왕									
권5·794									입금	
800										
권6·917										
923								주군		

그런데 위의 <표2>에 나오는 이들 ‘オホキミ’의 번역어를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점이 있다. 서두수와 김억에 의해 차용된 ‘オホキミ’의 초기 번역어인 ‘聖上’과 ‘님’²²⁾이 거의 전혀 계승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オホキミ’의 초기 번역어인 ‘聖上’과 ‘님’은 왜 후대에 정착하지 못했을까?

22) 이미 앞에서 한번 언급했듯이 김사엽은 권2·202번 노래에서 ‘オホキミ’를 ‘님’으로 번역한 적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オホキミ’의 번역어로 ‘님’을 차용한 것은 이 와카뿐이다. 덧붙여 이 와카에서 왜 ‘님’을 차용했는지 그는 특별히 밝히고 있지 않다.

4. 왜 초기 번역어는 정착하지 못했나

서두수와 김억이 차용한 ‘オホキミ’의 초기 번역어인 ‘聖上’과 ‘님’이 후대에 정착하지 못한 이유는 대체 무엇이였을까? 일반적으로는 초기 번역어가 후대에 강한 영향을 주는 데도 말이다. 그것은 이들 번역어가 ‘オホキミ’의 번역어로 적합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번역어와의 경합 과정에서 밀려났기 때문이었을까? 그러나 이런 이유보다는 오히려 다음과 같은 요인이 더 컸을 거라고 추정된다. 즉 일제강점기에 일찍이 서두수와 김억이 『만엽집』을 우리말로 번역했다는 사실 그 자체를 후대 번역자가 몰랐던 것은 아닐까? 따라서 거기에 ‘オホキミ’의 번역어인 ‘聖上’과 ‘님’이 나온다는 사실도 알 수 없었고, 그래서 ‘オホキミ’를 번역할 때 초기 번역어에 해당하는 ‘聖上’과 ‘님’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

이와 같은 추정이 타당할 수 있다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연숙과 김태준의 언급에서 잘 확인할 수 있다. 이연숙은 자신의 『만엽집』역서인 『한국어역 만엽집1』에서 광복 후에 출간된 김사엽의 『한역 만엽집』에 대해 “최초의 한글 번역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²³⁾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런 평가는 또한 동국대학교의 명예교수인 김태준에게도 보이는데, 그는 이연숙의 『한국어역 만엽집』을 서평하는 글에서 “한국 최초의 번역이었던 김사엽 박사의 책”과 같이 언급하면서, 김사엽의 『한역 만엽집』이 우리말로 번역된 최초의 『만엽집』이라고 소개하고 있다.²⁴⁾ 그러나 본고에서 이미 소상하게 밝혔듯이 김사엽의 『한역 만엽집』이 『만엽집』에 관한 ‘최초의 한글 번역’이라는 이연숙과 김태준의 언급은 안타깝게도 올바른 지적이 아니다.

결국 일제강점기에 서두수와 김억이 『만엽집』을 우리말로 번역했다는 사실이 잘 알려지지 못했고²⁵⁾, 이런 사정으로 ‘オホキミ’의 초기 번역어인 ‘聖上’과 ‘님’이 후대에 결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게 됐다고 판단된다.

그럼 반대로 서두수와 김억이 『만엽집』을 우리말로 옮겼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면 초기 번역어는 후대에 어떤 식으로든 살아남았을까?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김사엽의 『한역 만엽집』이다.

이연숙과 김태준의 언급이 잘 보여주고 있듯이 우리들은 김사엽의 『한역 만엽집』을 『만엽집』에 대한 최초의 우리말 번역으로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김

23) 이연숙(2012) 『한국어역 만엽집1-만엽집 권1·2』 박이정. p.5.

24) <http://blog.naver.com/pijbook>(검색일:2013.8.15)

25)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다음 글을 참조해주길 바란다.

박상현(2012) 「단절된 일본문학연구의 계보-『만엽집(万葉集)』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제55집, 한국일본문화학회. pp.117-135

사업 이후의 『만엽집』 번역자는 김사엽의 『한역 만엽집』에 나오는 번역어를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참조하면서 각각 『만엽집』을 번역하고 있었다. 곧 김사엽이 『만엽집』을 번역하면서 차용한 번역어는 비판적으로 계승되면서 후대에 남아 있는 것이다. 그것을 ‘オホキミ’에 대한 김사엽의 번역어와 이연숙의 번역어를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런 사정을 <표>로 정리한 것이 다음과 같은 <표3>이다.

<표3>

번역자	‘オホキミ’의 번역어								
김사엽	大君	임금	大王	皇女	天皇	皇子	님	王·왕	
이연숙	大君 대군		대왕	황녀		황자		왕	왕자

위의 <표3>에서 알 수 있듯이 이연숙은 ‘オホキミ’의 번역어로 ‘大君’, ‘대군’, ‘대왕’, ‘황녀’, ‘황자’, ‘왕’, ‘왕자’를 채택하고 있는데, 아래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왕자’²⁶⁾를 제외한 그 밖의 번역어는 모두 김사엽이 ‘オホキミ’를 번역할 때 이미 차용한 용어였다.

권2·202

泣沢の 神社に神酒すゑ 禱祈れども わご**おほきみ**は 高日知らしぬ

나키사하(泣沢)의 여신께 神酒 마쳐 빌고 빌지만 우리들의 **왕자**는 하늘에 가 버렸네²⁷⁾

이연숙이 ‘オホキミ’의 번역어로 빌려 쓴 용어들이 김사엽의 그것과 대부분 겹친다는 사실은 과연 우연일까? 그렇게 생각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연숙이 ‘オホキミ’를 우리말로 옮길 때 ‘オホキミ’에 대한 김사엽의 번역어를 참조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결국 이연숙의 ‘オホキミ’ 번역어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즉 김사엽이 ‘オホキミ’의 번역어로 차용했던 다양한 용어가 후대에 비판적으로 검토되면서 정착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김사엽이 『만엽집』을 번역했다는 사실을 이연숙과 같은 후대 번역자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²⁸⁾

26) ‘オホキミ’의 번역어로 ‘왕자’를 차용한 이유에 대해 이연숙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27) 이연숙(2012) 『한국어역 만엽집2-만엽집 권3』 박이정. pp.272-273

28) 구정호는 ‘オホキミ’의 번역어로 ‘임금’과 ‘주군’을, 강용자·고용환은 ‘オホキミ’의 번역어로

5. 나오면서

일본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시가집인 『만엽집』은 일제강점기에 이미 우리말로 번역되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オホキミ’라는 가어(歌語)를 서두수는 ‘聖上’으로, 김억은 ‘님’으로 각각 번역했다. 곧 ‘オホキミ’의 번역어로 ‘聖上’과 ‘님’이 차용됐다는 말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에서 언급한 선행연구, 특히 박상현의 일련의 연구는 잘 지적했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オホキミ’의 초기 번역어인 ‘聖上’과 ‘님’이 왜 후대에 정착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그 과제를 논한 것이 본고이다. 그럼 본고에서 얻은 연구성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オホキミ’의 초기 번역어인 ‘聖上’과 ‘님’이 후대에 정착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것들이 ‘オホキミ’의 번역어로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다른 번역어와의 경합 과정에서 밀려났던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뜻밖에도 후대 번역자가 일제강점기에 서두수와 김억이 『만엽집』을 번역했다는 사실을 잘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후대 번역자, 예컨대 이연숙은 그가 기억하고 있는 김사엽의 『만엽집』 번역서를 옆두에 두면서 각각 ‘オホキミ’의 번역어를 우리말로 옮겼던 것이다.

『만엽집』에 보이는 ‘オホキミ’의 번역어사를 통해 우리는 ‘オホキミ’의 초기 번역어가 왜 정착하지 못했는가를 잘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통해 『만엽집』 번역사에는 단절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²⁹⁾

‘대왕’을 차용했다. 이들 번역어 가운데 ‘주군’을 제외한 ‘임금’과 ‘대왕’은 이미 김사엽이 ‘オホキミ’의 번역어로 사용했던 용어였다. 그렇다면 이들도 이연숙과 같이 ‘オホキミ’를 번역할 때 김사엽의 번역어를 직접적으로 참고했던 것일까? 그랬을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 이연숙과 달리 이들의 번역어가 김사엽의 번역어와 큰 폭에서 겹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연일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설사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이들도 결국에는 ‘オホキミ’를 우리말로 옮길 때 김사엽과 같이 사고했던 것은 분명하다. 예컨대 구정호가 ‘オホキミ’의 번역어로 ‘임금’을 차용했던 것은 김사엽처럼 ‘オホキミ’를 고유어로 번역하고자 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강용자·고용환이 ‘オホキミ’의 번역어로 ‘대왕’을 빌려 썼던 것은 ‘オホキミ’의 원문 표기에 ‘大王’이 있기 때문인데, 이 또한 김사엽이 이미 시도한 번역어였기 때문이다.

29) 본고는 한국일본문화학회 제44회 국제학술대회(2013년 4월 13일, 전주대학교)에서 발표한 것을 대폭 수정하여 작성한 것이다.

【참고문헌】

- 강용자·고용환(2009) 『만엽집』 지만지. p.18
- 김사엽(1984) 『한역 만엽집-고대일본가집』 成甲書房. p.177
- 김사엽전집간행위원회 편(2004) 『김사엽전집』 (12) 박이정. p.97
- 박경희(2006) 『일본의 번역출판사업 연구-일본문학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번역원. pp.208-258
- 박상현(2009) 「김억의 『선역애국백인일수』 연구」 『통번역교육연구』 제7권2호, 한국통번역교육학회. pp.121-139
- _____ (2011) 「서두수의 『만엽집(万葉集)』 번역에 관한 연구-「防人歌(사찌모리노 우다)-치졸한 이식」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제39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p.223-236
- _____ (2012) 「단절된 일본문학연구의 계보-『만엽집(万葉集)』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제55집, 한국일본문화학회. pp.117-135
- _____ (2013) 「『만엽집』에 보이는 ‘大君’의 번역어 연구-서두수와 김억의 번역어를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제57집, 한국일본문화학회. pp.70-71
- _____ (2013) 「‘おほきみ’의 번역어 연구-김사엽의 『만엽집』 번역어를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제47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p.174-181
- 이연숙(2012) 『한국어역 만엽집1-만엽집 권1·2』 박이정. p.5
- _____ (2012) 『한국어역 만엽집2-만엽집 권3』 박이정. pp.272-273
- 尙学図書 編(1990) 『国語大辞典』 小学館. p.327
- <http://blog.naver.com/pijbook>(검색일:2013.8.15)

要 旨

『Manyousyu』, the oldest collection of poems in Japan, was already translated into Korea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the collection, the word ‘OHOKIMI(大君)’ was translated into ‘icon(聖上)’ by Seo Doo-soo and ‘sir(님)’ by Kim Ok. In other words, ‘OHOKIMI’ meant ‘icon’ or ‘sir’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fter national liberation, ‘OHOKIMI’ was translated by few translators. Interestingly, it was translated into neither ‘icon’ nor ‘sir.’ However, it wasn’t a matter of whether or not ‘icon’ or ‘sir’ was the right translation for ‘OHOKIMI,’ or if there was better translation for the word. In fact, both ‘icon’ and ‘sir’ weren’t used just because translators didn’t know that 『Manyousyu』 had been translated by Seo Doo-soo and Kim Ok. Among them, for example, Lee Yeon-sook translated ‘OHOKIMI’ based on 『Manyousyu』 translated by Kim Sa-yeop. As stated above, this study has figured out why the early-stage translation for ‘OHOKIMI’ hasn’t been used through analysis on the history of the translation of ‘OHOKIMI’ in 『Manyousyu』. As a result, it’s been unveiled that there was discontinuance in the translation history of 『Manyousyu』.

キーワード : Manyousyu, Seo Doo-soo, Kim Ok, Translated Words,
OHOKIMI, Japanese colonial period

투 고 : 2013. 8. 31
1차 심사 : 2013. 9. 14
2차 심사 : 2013. 10. 5